

## "점점 커지는 한류열풍" 서울문화예술대학교 한국언어문화학과에 관심 높아져

- 졸업 시, 한국어교원 및 다문화사회전문가 자격 취득



[문화뉴스 MHN 이충희 기자] 2017.8.4.

과거 음악, 드라마 등에만 국한되어 있던 '한류열풍'이 영화, 음식, 도서, 예능프로그램 등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면서 전세계가 대한민국에 주목하고 있다.

단순히 한국의 음악을 듣거나 연예인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언어, 문화 등에 관심을 가지고 직접 한국을 방문하거나 자국에서 한국 관련 교육을 받는 외국인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 같은 지구촌시대, 다문화시대에 발맞춰, 한국에서는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 전문가, 다문화사회 전문가 양성이 시급해진 상황. 때문에 이와 관련된 직업은 유망 직업으로, 또 해당 직업을 얻기 위한 교육 기관 및 학과는 유망 학과로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하다.

서울문화예술대학교 한국언어문화학과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해당 학과는 정부의 국어기본법에서 정한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요건에 맞춰 운영되며 법무부 출입국관리법령에 의거한 다문화사회전문가 교육 과정을 운영 중이다. 또한 학과에서는 매년 한글날 기념 "국내 및 해외 한국어교육자 체험수기 공모전(9,10월)"을 개최해 외국인 및 재외동포, 다문화가정 구성원과 관련된 다양하고 생생한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 경험담을 선발 시상하고 수상작품을 학과 홈페이지를 통해 전세계에 공개하고 있다.

해당 학과에서는 기본 커리큘럼 외에도 학기마다 한국어교육 전문가 및 다문화사회 전문가 초청 특강, 해외 한국교육원 및 한글학교 교사 연수 특강, 법무부 다문화사회 전문가 이수교육 특강, 전국 한국문화 탐방 등을 진행해 재학생들의 전문성을 다지고 있으며 재학생들은 학과 졸업 시 한국어교원 2급 및 다문화사회 전문가 2급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재외동포 교육을 비롯해서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을 위한 한국어 교육에 매진하고 있는 서울문화예술대학교 한국언어문화학과장 겸 국제언어교육원장 육효창 교수(국제한국어언어문화학회회장)는 "해당 학과 졸업 시 취득하게 되는 한국어교원 2급의 경우 국내 외에서 선호도가 높은 편이고 특히 다문화사회 전문가 2급의 경우, 선발 인원과 교육 학교도 제한되어 있어 더욱 선호도가 높은 편"이라며 "한류열풍 확산, 세계화와 더불어 한국언어문화학과는 더욱 전도 유망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를 바탕으로 문화예술 특성화 사이버대학의 장점을 살려 국내외 학습 수요자들을 위해 "향후 대학원 설립 및 해외 세종학당 설립에 주력하는 한편, 2009년부터 재외동포재단과 MOU를 맺고 재외한글학교 교사 사이버 연수과정(온라인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본교 국제언어교육원(한국어교육센터)과의 협업을 통해 한국어교육실습의 질을 더욱 높여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문화예술대학교 한국언어문화학과와 국제언어교육원은 전세계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의 산실로 자리매김하며 한국언어문화학과 국내외 동문 1100여 명과 국제언어교육원 온라인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수료자 83개국 4300여 명이 전세계 한국어교육자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다.

이 학과에는 한국어교원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는 장학금이 있다. 바로 남윤철 장학금이다. 남윤철 장학금은 2014년 한국언어문화학과에 재학 중이었다가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안산 단원고 제자들을 구조하다가 희생된 남윤철 교사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추모하기 위해 본교 교직원과 학생들이 모아 전달한 위로금을 유가족들이 전액 학교에 기탁한 장학금이다. 2015년부터 매년 한국언어문화학과 국내외 입학생들에게 5월 15일 스승의 날에 수여하고 있다.

한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한국언어문화학과는 학업계획서(60%)와 지원자의 관심과 흥미, 예비지식, 논리력을 평가하는 서술시험(40%)만으로 입학생을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수능, 내신 성적이 부족한 수험생들도 도전 가능하다. 남윤철 장학, 해외 한글학교 교사 장학 등 다양한 장학혜택을 갖추고 있어 국내외에서 신편입학을 통해 한국어교원 및 다문화사회 전문가로서의 꿈을 실현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현재 해당 학과는 16일까지 2017학년도 2학기 원서접수를 진행 중이며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018년도 3월에 시작되는 2018 봄학기 모집은 12월 1일부터 시작된다.

chunghee3@munhwanews.com